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### 2010년 일본 생보업계 큰 변화 예고

- 2010년 일본생명보험업계는 다이이치생명(第一生命保險)의 주식시장 상장,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 등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  - 업계 2위인 다이이치생명은 올해 4월 주식시장 상장으로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될 예정임.
  - 다이이치생명은 상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적극적인 M&A(기업인수합병)에 나서는 등 성장 확장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.
  -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니혼생명(日本生命保險)은 최근 미국의 푸르덴셜과의 자본 제휴를 시작했으며, 중국시장에도 거점을 확대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활발히 나서고 있음.
  
- 또한 최대 외자계 생명보험회사인 아리코재팬 매각 및 일본우정공사의 민영화 향방 등도 업계의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임.
  - AIG 그룹이 금융위기 여파로 일본 자회사인 아리코재팬 매각을 발표한 이후 1년 3개월 간 여러 회사들과의 매각 협상이 가격 등의 차이로 무산되고 현재는 미국 메트라이프와 인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타결 시 생보업계의 적잖은 판도 변화가 예상됨.
  - 또한 업계 최대인 니혼생명의 두 배 규모인 106조 엔의 자산을 보유한 일본우정공사의 민영화 계획이 정권 교체 후 철회가 재검토 되고 있는 것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.
  - 업계에서는 우정공사의 민영화가 무산될 경우 우정공사의 보험부문인 우정보험과 공정 경쟁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.

(FujiSankei Business I, 2/22)